

남북한 한문학 연구의 비교 시론*

- 북한의 최근 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강 혜 선**

차례

I. 머리말	4. 번역서 출간의 특징
II.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 관점과 서술방식	IV. 남북한 한문학 공동연구의 방향 모색
III. 북한의 한문학 연구의 특징	1. 일차 자료 및 번역 성과의 상호 공개와 공유
1. 문학사에서의 한문학의 성격	2. 문학연구의 주요 개념에 대한 상호 논쟁
2. 한시 연구의 특징	V. 맷음말
3. 한문산문, 문학론 연구의 특징	

I. 머리말

남한에서는 개방화정책 이후 북한의 문학작품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문학연구의 업적 상당 부분이 공개되었으며, 아울러 그러한 책들을 소개하는 작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와 소개를 통해 북한의 문학과 문학연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8년-1990년을 전후로 하여 북한문학 연구는 본격적인 학문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 이 논문은 200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현재 북한의 문학작품 및 문예이론서는 남한에 80여 종 소개되어 있으며, 2001년

그런데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에 대해서는 민족문학사연구소의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비평사, 1991)에서 북한의 고전문학사를 상세하게 검토한 이후 이렇다 할 후속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고전)문학사, 고전문학 연구구성과, 고전의 번역 및 출간의 성과들을 연구자들마다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접하고 있지만, 그를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점이 바로 이 글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이 글은 ‘시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글이 ‘통일 대비’의 한국문학의 과제로서 남북한 한문학 연구의 비교를 온전히 수행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대비’라는 말은, 북한의 연구성과를 정리,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들이 제출해 놓은 새로운 전망과 과제를 함께 아울러 온전한 민족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거나, 남북한의 한문학 연구 비교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이나 민족공동체적 의식을 찾아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그러한 강박적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한문학 연구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데 치중하기로 하겠다. 하지만 이 역시 자료의 부족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한문학연구는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 주체사상의 문예이론에 충실하므로 남한의 한문학 연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철학적 기반과 문학사관에 의거해 있다. 따라서 그 철학적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까지도 절실히 요청되지만, 이것 역시 나의 능력 밖이다.

여기서는 내가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의 한문학 연구들 중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²⁾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의 최근 한문학 연구들에서 도출되는 특징을 정리

까지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문학 연구는 그 목록(논문과 저서)이 65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상은 김성수, 『북한문학, 통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3) 참조.

2)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한문학 연구성과들은 주로 통일부 산하 북한 자료센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학』, 『조선어문』, 『조선고전문학연구』에 수록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논문의 필자들은 교수, 박사, 준박사, 중국의 실습생 등 고전문학연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들이었다. 내가 접한 북한의 연구성과들이 풍부하지는 못했어도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런데 우상렬, 이광호, 「한국학」관계 북한의 석사, 박사 학위논문 목록, (『정신문화』 2001년 겨울호)에 수록된 북한의

하려 한다. 그리고 이어서 남북의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과 문학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문에서, 한문학의 공동 연구 및 연구성과의 공유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II.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 관점과 서술방식

북한은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사회의 혁명화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철저하게 목적주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다. 고전문학의 연구 역시 이러한 문학관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먼저 주체사상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 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김하명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하명의 논의를 따르면, 고전문학유산 계승사업은 역사적 사실의 단순한 회고나 기록, 해석하기 위함이 아니요, 현실적 과업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고전문학작품들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 노동, 사랑 등에 대한 당대 인민들의 해답, 태도 등을 보면서 오늘날의 혁명과업 해결에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전문학유산 계승사업은 첫째, 과거의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인민을 직접적으로 사상, 미학적으로 교양시킨다는 측면에서, 둘째, 현 작가들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창조에 그 사상과 예술적 기교를 배워 이용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진행해야 한다.³⁾

이 논의를 통해,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의 목적은 고전문학유산을 혁명적 관점에서 해석, 평가하여 대중을 교화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학사나 고전문학 연구서들이 공동 집필이든 개인 집필이든 글 자체가 상당한 토론을 거친 뒤 그 결과만을 쉽게 풀어서 써놓는, 교양적이고 해설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그 결과 한문학작품의 제목이 국문으로 바뀌고,

한문학관계 석사논문 19편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민족대학, 연변대학 등에 수소문하였으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

3) 김하명, 「공산주의 교양과 고전문학유산」,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문학』, 과학원 출판사, 1959.

작품을 인용할 때 원문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주체사상화 이후에도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의 문예정책에는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체의 문예이론은 민족적인 문예형식과 사회주의 이념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식 주체사실주의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의 역할”을 논의한 최근의 글을 보면 이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에 따르면, 주체의 문예이론은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의 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에서 민족적 특성을 적극 살려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고전문학작품에서 민족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민족적 특성은 첫째 애국주의 정신, 둘째 인민의 고상한 품성과 미덕, 셋째 민족생활의 진실한 묘사, 넷째 (민족적 정서에 맞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자아내는)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꼽고 있다.⁴⁾

이와 같은 관점은 고전문학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어, 한문학의 경우 위에서 꼽은 네가지 민족적 특성을 시대와 작가를 달리 하며 한문학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조선어문』 표지에는 “대학 교원들과 연구사들은 혁명과 인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과학적 탐구를 하는 주체적 입장을 견지해야”한다는 김정일의 교시가 인쇄되어 있다. 지금 북한의 어문연구는 주체적 어문학 연구가 강령이 되어 있는 것이다.

III. 북한의 한문학 연구의 특징

1. 문학사에서의 한문학의 성격

남한과 달리 북한 문학사에서는 한문학이라는 용어나 범주가 별개로 사용되지 않는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한문학사가 고전문학사와 구분되어 독립적으

4) 리창유, 「우리 식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역할」, 『조선고전문학문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로 서술된 예를 보지 못했다. 곧 북한은 철저하게 한문학을 고전문학의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시나 한문산문과 같은 용어도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시는 주로 시가문학, 시문학, 서정시(한자서정시나 한자시라는 용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포괄적, 보편적 용어로 지칭하고, 한문산문의 경우는 패설, 기, 전 등 산문의 문체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정론문, 풍자문 같이 주제, 내용을 중시하는 명칭으로 바꾸어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한문학이 비록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의 문학형식이지만 민족문학의 형식으로 변화하여 발전해왔음을 분명히 하고, 민족문학의 형식으로서만 한문학을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한문학을 중세의 동아시아 공동의 보편문학으로서의 성격과 민족문학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는 남한의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중국문학의 영향 또는 수용의 문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최근 남한의 한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문제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한문학의 정체성을 따지는 식의 논의는 북한의 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다. 최치원에게 있어 만당시의 영향, 이인로와 이규보 등에게 있어 송시의 영향, 이색, 이제현에게 있어 성리학의 영향, 삽당시인에게 있어 당시의 영향, 실학파문인들을 위시한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있어서 명청문학의 영향 등은 북한에서는 전혀 고려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 서술의 공통적 전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인민성, 당성, 비판적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실주의로 요약된다. 북한은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문학과 반동적이고 소수 특권 계급사회를 위한 문학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한문학 가운데서 인민성과 사실주의가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문학사로 편입한다. 1970년대 접어들어 주체사상화 이후 인민성이 문학사 서술에서 더욱 중요한 미학적 기준이 되면서, 인민창작이 아닌 한문학의 경우 인민들의 사상, 감정, 요구 등을 반영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평가대상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인민성과 더불어,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특수성에서 나온,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는 독자성 및 특수성에 상응하는 미적 개념으로서 애국주의를 전제하고 있다.⁵⁾ 북한의 문학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시를 보면 봉건제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작품들보다도 외세에 대항하는 작품들이 그 미학적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문학사의 관점이 한문학사 서술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 한자시 발전의 진보적 경향과 최치원의 애국주의 한시를 서술하였고, 산문에서는 우화, 여행기, 수이전체 등 예술적 산문의 출현을 주목하였다.
- * 고려전기 : 정지상, 박인량, 정승명 등의 인민성과 애국주의가 구현된 한시를 서술하였고,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성취를 서술하였다.
- * 고려후기 : 이 시기는 계급간 모순보다 외적과의 반침략에 국투쟁(대몽항쟁)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다. 진보적 문인(신흥사대부에 해당)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진보성이 인민의 힘에 의해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해좌칠현 및 이규보, 임춘, 이곡 등을 진보적 작가로 보고 그들의 사실주의적 경향의 한시를 서술하였다.
- * 조선전기 : 김시습, 성간, 이석형, 이행, 이달, 임제, 권필, 어무적 등과 그 외 여류시인의 진보적 인민적 한시를 서술하였다. 산문에서는 패설을 독립 단위로 설정하면서, 패설의 발전을 인민들의 미학적 요구의 결과로 평가하였다.
- * 조선후기 : 서민시인(중인시인)의 풍요(『소대풍요』, 『풍요속선』 등)를 중시하였는데, 특히 조수삼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반계급의 한시문학으로는 근로인민성과 애국주의적 정서, 북방의 자연과 인정몰태에 대한 관심과 반봉건적 지향이 담긴 작품을 강조하였다. 18세기의 이용휴, 이언진,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박지원, 19세기의 정약용, 김립을 대표적 작가로 꼽았다. 작품으로는 김창흡의 <갈역잡영>, 홍량호의 <북새잡요>, 신광수의 <관서악부>, 김려의 <사유악부> 등에서 보듯이 악부시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또한 실학파의 문학으로 연암의 소설과 정약용의 한시를 서술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북한의 문학사 속에 서술된 한문학은 철저하게 주체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해석, 평가된 결과만을 편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주제사상 확립 이후 북한 문학사는 더욱 경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한의

5)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문학사의 구성체계 및 서술방식」,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장작과비평사, 1991.

경우 비교적 풍부한 한문학작품을 다양하게 문학사에 편입시키고 있지만 뚜렷한 문제의식이나 사관이 부족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북한의 문학사에 편입된 한문학은 너무나 목적과 이념이 뚜렷하여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 결과 한문학의 양식적 특징이나 한문학의 형식 문제 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인민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한문학의 주요 담당층인 봉건지배계층의 성격을 구체화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배계층의 성격 변화에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요약 정리한 시대별 논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학적 탐구를 내세우는 북한의 문학사가 상당 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분석, 서술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진보적, 인민적인 작품 중심으로 작가를 파악하여 작가에 대한 과대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품의 해석이 실상보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다.

2. 한시 연구의 특징

북한의 문학사나 문학연구는 의외로 한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민족 특히 인민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방법론이 적용된 뒤에도 한시가 여전히 국문시가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시가 비록 인민에 의해 창작된 문학형식은 아니지만, 중세시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풍부하게 인민성과 애국주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실제적인 자료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살펴본 북한의 최근 고전문학 개별연구들은, 계재 빈도수로 보면 한시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여타의 고전문학 분야인, 구비문학, 국문시가, 국문소설, 그리고 한문산문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았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한시 연구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 목록은 순전히 내가 직접 찾아볼 수 있었던 자료에 국한된다)

* 변규순, 고려중엽의 시가문학유산에 대한 문헌학적고찰(『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지정엽, 최연의 시창작활동에 대하여(『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김관두, 봉건말기 악부시가의 새로운 발전(『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

- 술종합출판사, 1993)
- * 박춘명, 19세기중엽 이후시기의 한시의 창작경향과 한시작가들의 창작활동(『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 김희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반침략 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에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7권 제4호, 2001)
 - * 박정양(중국 실습생), 홍량호의 악부시가 『청구단곡』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8권 제1호, 2002)
 - * 오희복, 문현자료를 통하여 본 리조시기 한자시 창작의 일반적경향(『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9권 제4호, 2003)
 - * 김관원, 악부시가 유산에 대한 문학사적 고찰(『조선어문』 제4호, 1988)
 - * 횡하건, 『익재집』의 문학사적 고찰(『조선어문』 제3호, 1998)
 - * 정홍교, 서민시인 조수삼과 그의 작품들에 대하여(『조선어문』 제1호, 1991)
 - * 김충기, 『사명집』의 시작품들에 구현된 반침략애국정신에 대한 고찰(『조선어문』 제3호, 1993)
 - * 정홍교, 작품유산을 통하여 본 고려중엽의 진보적 시인 김극기의 창작 경향(『조선어문』 제2호, 1994)
 - * 김용철, 『목은집』을 통해 본 리색의 시창작 경향(『조선어문』 제4호, 1994)
 - * 김문성,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리곡의 시문학(『조선어문』 제4호, 1995)
 - * 리성, 리시향과 시 『평양의 노래』에 대하여(『조선어문』 제3호, 1996)
 - * 리성, 신팽수와 『관서악부』에 대하여(『조선어문』 제3호, 1997)
 - * 김윤성, 리익과 『성호악부』에 수록된 시작품의 주제사상적특성(『조선어문』 제3호, 1998)
 - * 림명순, 김상현과 『설교집』에 대하여(『조선어문』 제4호, 1998)
 - * 림창덕, 실학파문학의 언어형상(『조선어문』 제2호, 1999)
 - * 림창덕, 고려말기에 창작된 반일애국시가의 언어형상(『조선어문』 제3호, 2000)
 - * 김진국, 19세기 후반기에 창작된 반침략애국주제의 시작품들과 그 특성(『조선어문』 제1호, 2001)
 - * 림창덕, 『오음집』에 실려 있는 애국적한시들의 경향에 대한 고찰(『조선어문』 1, 2001)
 - * 전종호, 평양을 노래한 중세 단군관계 시가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성(『조선어문』 제3호, 2001)
 - * 목천복, 『농암집』에 실려 있는 반침략애국주제의 한자서정시에 대하여(『조선어문』 제4호, 2001)
 - * 송명심, 고려전반기에 창작된 애국적주제의 서정시 작품들에 대한 고찰(『조선어문』 제1호, 2003)

- * 김삼봉,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김지초의 시문학에 대하여(『조선어문』 제3호, 2004)

이상의 목록을 일별해 보면, 우선 그 제목에서 한시연구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시문학유산 중에서 유독 애국주의로 포섭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다. 제목에 반외세, 애국적이라는 말을 선명하게 드러낸 경우들은 물론이려니와, 반외세나 애국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서술된 내용을 보면 반외세, 애국주의로 귀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9세기중엽 이후시기의 한시의 창작경향과 한시작가들의 창작활동」의 경우, 이건창, 황현, 강위, 김택영, 유인석, 최익현, 전해산, 이기, 곽종석, 장지연 등 근대사회 활동가 또는 의병활동 가의 애국적 한시를 분석하였다. 「리익과 『성호악부』에 수록된 시작품의 주제사상적특성」의 경우, <성호악부>의 주제 사상적 특성을 인민의 반침략애국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우선 찾고 있다.(당시 봉건통치배들의 무능과 부패 성을 폭로 비판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동정하고, 인민의 고상한 정신적 도덕적 풍모와 미풍양속 노래한 시도 포함해서) 「김상현과 『설교집』에 대하여」의 경우, 김상현이 민족적 지조를 지켜 외세와 싸울 때의 체험을 담은 시집이라 하여 『설교집』을 주목하고, 『설교집』에 수록된 한시들을 애국애족의 시정신으로 평가하였다.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김지초의 시문학에 대하여」의 경우도 마찬이다. 김지초(1788-1874 : 평안북도 영변 출신. 급제후 관료의 길을 포기하고,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를 편답하다가 말년에 자기 지방의 방비책을 상소하였다. 제자들에 의해 『칠전김선생문집』이 1881년 편찬되었는데, 350여수의 시와 50여편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의 <평양에서 외적을 쳐부신 소식을 듣고> 등은 미국의 서면호 침략을 소재로 쓴 시로서, 반침략애국투쟁을 주제로 삼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봉건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거나 봉건제도 하의 인민의 생활, 정서를 반영한 한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연의 시창작 활동에 대하여」의 경우, 최연(崔演, 문집총간 32 『艮齋集』)은 우리 문학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전기 문인인데 그의 한시가 봉건양반의 생활감정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지만 가난한 인민의 생활을 동정하고 관료배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였다. <거지녀자의 노래를 듣고(聞丐女歌, 有感)> <류랑민의 탄식(流民歎, 次黃山谷詩韻)>등이 그 예이다. 「봉건말기 악부시가의 새로운 발전」 「작품유산을 통하여 본 고려중엽의 진보적 시인 김극기의 창작 경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극기의 한시는 해좌칠현과 공통된 특성인 낭만주의적 수법으로 지은 시작도 있지만, 해좌칠현과 구별되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시작을 창작하였음을 평가하면서, 당대의 농촌현실, 농민생활을 반영한 시를 분석하였다. 「서민시인 조수삼과 그의 작품들에 대하여」의 경우 역시, 조수삼이 근로하는 서민과는 구별되는 자의식을 지닌 한계를 보이지만 애국적, 진보적 입장에서 당대의 현실을 깊이 탐구하고, 체험하여 시적 형상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로, 한시의 형식 중 특별히 악부시계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악부시가는 우리 인민에게 고유한 민족적 특성이 훌륭히 구현되어 있는 가요의 한 형태”라 보고, 특히 17세기 이후 인민의 반침략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들과 인민의 미풍양속과 세태풍속를 노래한 악부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악부의 시인들이 비록 세계관적 계급적 제한성을 지니고 있지만, 악부시는 “봉건사회를 미화분식하면서 생활을 외면하고 순수 자연만을 노래하고 있던 것”과 구별된다고 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사상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시의 까다로운 작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악부시체를 모색한 성과를 주목하였다. 고시체 형식이나 장단구의 활용, 시조형식을 반영한 식구의 활용, 우리말 어휘의 활용과 상징과 비유의 수법 활용 등 상대적으로 여타의 한시체보다 비중있게 악부시의 형식을 논의하였다.

네 번째 특징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한시들에서 애국적, 민족적 정서를 찾는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된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리곡의 시문학」의 경우, <총석정> <삼일포의 사선정에서> 등을 거론하면서 강렬한 애국적 감성과 깊은 서정의 결합을 높이 평가면서, 산수파 시인들의 작품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리시향과 시 <<평양의 노래>>에 대하여」의 경우, 남한에서 주목되지 않은 이시향(李時恒 1672-1736 : 평양 출신.

몰락 양반 이정한의 아들로, 관찰사 류상운에게 수학. 평안도, 자강도 일대에 방어요새 구축을 상소하였으며, 『관서통지』를 편찬하였다. 8권4책의 『和隱集』(현재 규장각에도 필사본이 있음)이 있다)의 시문을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시항의 시작들 대부분은 평양 중심의 서북지방을 읊었으며, 그의 대표작 <평양의 노래(西京賦)>(3826자 809행의 대화체의 장편 부)는 평양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였기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신팽수의 <관서악부> 역시 평양과 평안도 일대를 대상으로 한 점이 강조되었고, 평양을 민족의 성지로 찬양하고 평양의 절승을 형상화하고, 평양사람들의 생활세태를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평양을 노래한 중세 단군관계 시가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성」의 경우는,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평양을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출생지로서 민족의 성지라는 인식 아래 단군을 소재로 일련의 한시들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읽어내었다.

이상을 통해 보면, 1990년 이후 북한의 한시연구는 이전의 문학사에서 한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외세의 애국주의와 평양을 더욱 강조한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제국주의(남한을 포함한 미국)와의 적대적 상황인식에서 요청되는 문학적 대응, 문학연구의 실천결과로 보인다.

3. 한문산문, 문학론 연구의 특징

남한에서는 한문산문의 연구와 산문작품의 대중적 보급이 한시 못지 않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한시에 비해 한문산문의 연구와 대중적 보급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문학사의 서술에서도 산문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으며, 내가 찾아본 바의 몇몇 논문집에서도 산문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북한에서는 문학의 장르 중에서 소설을 진보적 장르로 선형화하는 경향이 강해서, 한문산문의 의의는 소설과 연결될 때 주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에서 수이전체와 패설이 일찍부터 중시된 것도 이들 문체가 소설의 발생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주제나 사상면에서 비판성을 강하게 띠는 정론문과 풍자문을 중시하였고,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기술하는 것 그

자체가 애국적이라는 관점에서 유기(기행문)를 주목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한문산문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역시 내가 찾을 수 있었던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 * 강복실, 민족고전문헌의 한 형식으로서의 전서에 대한 몇가지 고찰(『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6권 제4호, 2000)
- * 강복실, 『《은봉전서》의 편찬과정에 대한 고찰(『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6권 제4호, 2000)
-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 연구소 고대중세사실, 패설문학의 역사와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조선어문』 제2호, 1988)
- * 김동백, 패설의 일화적 성격-고려시기 패설을 중심으로(『조선고전문학문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 김희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문예산문으로서의 『기』(記)에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4권 제4호, 1998)
- * 림창덕, 실학파문학의 언어형상(『조선어문』 제2호, 1999)

검토의 대상이 너무나 소략하여 이를 놓고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한문산문 연구의 특징을 도출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특징은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다. 먼저 「패설의 일화적 성격-고려시기 패설을 중심으로」를 살펴보자. 이 논의는 패설의 성격을 남한과 매우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첫째 패설의 발생을 인민문학에서 찾고 있다. 즉, 무신란으로 정계를 피하여 인민들 속에 들어간 진보적 문인들이 인민구전문학과 접촉함으로써, 고루한 정통문학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학적 발견을 하고, 선행시기 단편적인 여러 산문문학, 곧 인민설화, 수이전체, 일화 등을 계승하여 패설을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패설의 일화적 성격을 주목하였다. 일화란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는 흥밋거리의 짤막한 이야기인데, 이 일화성이 바로 패설과 소설을 이어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문예산문으로서의 『기』(記)에 대하여」를 보자. 이 논의는 아름다운 산천과 찬란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기문을 찾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앞절에서 살펴본 바 한시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애국주의의 적용이라 하겠다.

실학파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전대와 달라지거나 더 나아간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북한의 문학론 연구의 최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북한 문학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실주의 미학론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북한은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과학원출판사, 1963)을 통해, 비판적 사실주의의 개념과 발생, 발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한 바 있었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 사실주의는 봉건사회 붕괴기 이후 봉건사회의 모순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는다. 또한, 현실생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바로 생활 자체의 형식으로 표현하며 세부 묘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비판적 사실주의 역할 및 존속은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로 제한된다. 이러한 논의 이후 북한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개념을 사실주의적, 사실주의적 경향 등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문학론의 내용은 최근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리규찬, 우리 나라 15-16세기 문예평론에 대한 몇가지 고찰(『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 김순호, 『완당집』에 반영된 추사 김정희의 미학적 견해에 대한 고찰(『조선어문』 제2호, 1993)
- * 김춘택, 고려시기 한자시에 대한 문학평론에서 론의된 서정시의 형태상 특성에 대한 문제(『조선어문』 제1호, 1995)
- * 김용철, 고려말기의 진보적 시인 리색의 미학적 견해(『조선어문』 제1호, 1997)
- * 원장철, 평론집 『동인시화』에 표현된 서거정의 미학 견해(『조선어문』 제2호, 2003)
- * 정홍교, 실학자들의 미학사상에 대한 고찰(『조선어문』 제2호, 1996)

『우리 나라 15-16세기 문예평론에 대한 몇가지 고찰』의 경우, 15-16세기 문예평론은 당시 양반관료배들의 무사상적 음풍영월식 창작방법을 비판하고, 문학작품의 교양적 의의(문학에서 내용의 우위성, 문학과 현실의 관계 중시)를 강조하여 이 시기 사실주의 시작품들의 미학적 뒷받침이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이색, 서거정, 실학파, 김정희의 미학적 견해를 논한 다른 논의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논의와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북한에서는 모방주의,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하여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요구하거나 창작에서 현실생활을 강조하는 문학론을 진보적 미학 견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미학 견해가 사실주의 문학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4. 번역서 출간의 특징

북한의 한문학 번역서는 조선 노동당의 문예정책에 의해 누구나 알기 쉽고 즐겨 읽을 수 있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철저히 역사주의적 원칙과, 당성, 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에서 한문학의 작가와 작품을 선별하여 한문학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것을 고수하고 있다.⁶⁾

다음은 남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한의 한문학관련 번역서 목록이다.(이상은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것만을 수록하였다)

- * 김상훈 역, 『사가시선(四家詩選)』(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 *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중, 하』(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 * 과학원 고전연구실, 『반계수록』(과학원출판사, 1960)
- * 과학원 고전연구실, 『담현서 1, 2』(과학원출판사, 1960)
- * 김일성종합대학 한문학강좌 역, 『애국한시선』(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1960)
- * 조선고전문학선집 4 『한시선집 1』(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 * 박치함 편, 『(박인로탄생400주년 기념)박인로 작품선』(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1961)
- * 조선고전문학선집 5 『력대시선집(한시선집 2)』(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3)
- * 조선고전문학선집 28 『정약용작품선집』(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 * 조선고전문학선집 20 『력대한시집』(민족출판사, 1989)
- * 로은우 편저, 김찬순 역, 조선고전문학 선집20 『기행문집(1)』(문예출판사, 1988)

6) 김상훈, 류희정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50 『리규보작품집 1, 2』(문예출판사, 1990)에 부친 김하명의 서문 참조.

- * 류수, 김주철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57 『김시습작품집』(문예출판사, 1988)
- * 김상훈, 류희정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50 『리규보작품집 1, 2』(문예출판사, 1990)
- * 신구현, 조선고전문학선집 54 『리제현작품집』(문예출판사, 1990)
- * 리철화, 조선고전문학선집 61 『림제, 권필작품집』(문예출판사, 1990)
- * 리철화, 류수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70 『정약용작품집(1)』(문예출판사, 1990)
- * 오희복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72 『김려작품집』(문예출판사, 1990)
- * 김세민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79 『파수편』(문예출판사, 1990)
- * 정문향 편저, 『그네뛰기: 옛녀류시인집』(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이상을 통해 보면, 북한의 한문학 번역 성과는 최근 들어서면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연차적으로 출간하였던 『조선고전문학선집』 시리즈를 1990년대 들어 그대로 다시 출간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⁷⁾ 위에서 든 목록 외에 새로운 번역 성과가 있을 듯하지만 내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이다.

여기서는 이상의 북한 번역서를 통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번역의 관점과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한시를 선집하여 번역한 경우를 보자. 이해산이 『력대한시집』(민족출판사, 1989)의 출판에 부친 설명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당의 문예정책을 설명하게 만들어 민족의 문학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150여명의 시인들의 시를 수록하였다.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그들의 지향, 그들의 투쟁을 반영한 것, 국토방위와 애국투쟁, 애국감정을 반영한 것, 조국의 자연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민간전설, 민담 등을 취급한 것, 남녀간의 사랑과 인간간의 신의, 절개 등을 노래한 작품들을 주로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번역 방식은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간결하면서 시적 정취를 살려 번역하였다. 개인문집을 대상으로 시문을 선발하여 번역한 경우나, 기행문을 선발하여 번역한 경우도 위에서 본 바의 관점과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는 이 모든 번역물들이 고전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참고 자료가 됨과 동시에,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역사와 문화의 학습과 정서적 교양

7) 북한의 이 시리즈는 올해 들어서 남한의 보리출판사에서 겨레고전문학선집으로 재편찬되고 있다.

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IV. 남북한 한문학 공동연구의 방향 모색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한과 북한이 취하고 있는 한문학 연구의 관점 및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남북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통일 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론을 통일하거나 일치시키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의 문학연구의 목적과 관점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의 영역이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일차 자료 및 번역 성과의 상호 공개와 공유

나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한문학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일차 원전자료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북한의 한문학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작품이나 문집의 원자료는 무엇인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었지만, 내가 접한 한문학 관련 연구서 어디에도 일차 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한문학 연구에서는 남북에서 각기 수집 정리한 한문학의 일차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임을 깨달았다. 예컨대 북한의 패설 연구에서 논의된 바, 천예의 <해동방어>나 윤기현의 <장빈거사호찬>의 경우, 작가도 생소하거나 작품의 소재 또한 궁금하였다. 또 19세기 평양출신의 김지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모두 한문학 작품을 해설하고 인용함에 있어 한문원문의 올바른 번역과 정확한 의미의 고증은 필수적이다. 이에 남북한에서 각기 이루어진 번역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번역의 잘못과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학연구의 주요 개념에 대한 상호 논쟁

한문학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은 남북한이 서로 같지 않다. 북한의 관점과 방

법론은 주체의 문예이론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반면, 남한의 경우는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 즉 역사주의, 구조주의, 문학사회학, 수용미학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연구의 안을 들여다 보면 함께 공유하거나 적어도 상호 참조 가능한 개념들이 많이 보인다.

첫째,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개념과 적용 문제. 북한에서 낭만주의는 한시와 고전소설의 창작방법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고전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전을 찾으려는 노력이 1963년 무렵 일단락된 뒤, 여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다른 부류의 작품 예컨대, 환상성, 애국심, 개인적 울분 등에 기초한 문학들을 문학의 합법적 발전 과정 안에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⁸⁾ 남한의 한문학 연구에서도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는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연구가 남한의 연구에 커다란 자극을 준 경우이기도 하다. 특히 사실주의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남북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논쟁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범주와 적용 문제. 북한의 애국사상 개념⁹⁾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좀더 역사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과학적으로 인식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은 남북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는데, 남한의 경우는 애국주의란 용어 대신 민족주의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민족적 특성이나 민족적 문학형식 등은, 남한에서도 특히 조선 후기 한문학의 성격을 부각시킬 때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호 논쟁을 통해 그 개념 및 범주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셋째, 계급성, 인민성의 개념과 적용 문제. 북한에서는 인민적인 문학과 반인민적인 문학 또는 진보적인 문학과 보수적인 문학의 대립식 양분 구조로 파악한다. 이 같은 계급범주는 문학현상의 미묘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명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한문학의 주요 담당층이 중세의 지배계급층인 것을 생각할 때, 남한에서 활발하게 해명되어온 사대부계층의 성격과 변화에 대한 논의를 북한과 논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한때 풍미했던 민중성(민

8) 민족문화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185쪽 참조.

9) 『사회주의 문학예술론』의 정의를 따르면, “애국심은 그 어떤한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 것”이라 하였다.

중의식)의 논의를 북한의 계급성, 인민성과 견주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학과 근대성의 문제. 남북 모두 문학사에서 중시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한 상호 논의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남북한이 한문학 연구에서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각각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논쟁하고, 그 결과를 문학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답할 길이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진지하게 거친다면 상호 이질적으로 진행되어온 남북한의 한문학 연구가 어떤 점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V. 맷음말

나는 북한의 한문학 연구 성과들을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시사받은 바 적지 않았다. 문학연구가 학문중심주의나 연구자의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고 당대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 또 문학 속에서 민중적 영웅이나 애국자의 전형을 찾고 그것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문제로 고쳐 널리 유포하는 것 등은 매우 바람직해 보였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이라 할 만한 논의의 결과 앞에서는 당혹스럽고 암담하였다. 또한 내가 평소 좋아하는 서정적 한시작품들이나 서정적 소품문들 대부분이 철저하게 도외시되고 있음에 새삼 놀랐다. 이것이 남북한 한문학 연구 비교의 한 실상인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하였다. 북한에서는 고전문학연구자들을 어떻게 양성하는지, 양성된 연구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연구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날의 젊은 연구자들은 한문의 원전을 어떻게 접하는지 등. 이러한 의문들이 사실, 북한의 한문학 연구 성과보다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주제어 : 한문학 연구, 남한과 북한, 연구관점의 상이성, 주체사상, 민족주의, 사설주의

참고문헌

- 강복실, 「민족고전문학의 한 형식으로서의 전서에 대한 몇가지 고찰」,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6권 제4호, 2000.
- 강복실, 「《은봉전서》의 편찬과정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6권 제4호, 2000.
- 과학원 고전연구실, 『반계수록』, 과학원출판사, 1960.
- 과학원 고전연구실, 『담헌서 1, 2』, 과학원출판사, 1960.
- 과학원 고전연구실,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논쟁』, 과학원 출판사, 1963.
- 김관두, 「봉건말기 악부시가의 새로운 발전」,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1993.
- 김관원, 「악부시가 유산에 대한 문학사적 고찰」, 『조선어문』 제4호, 1988.
- 김동백, 「패설의 일화적성격-고려시기 패설을 중심으로」, 『조선고전문학문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김문성,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리곡의 시문학」, 『조선어문』 제4호, 1995.
- 김삼봉,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김지초의 시문학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3호, 2004.
- 김상훈 역, 『사가시선(四家詩選)』,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 김순호, 「《완당집》에 반영된 추사 김정희의 미학적 견해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제2호, 1993.
- 김용철, 「《목은집》을 통해 본 리색의 시창작 경향」, 『조선어문』 제4호, 1994.
- 김용철, 「고려말기의 진보적 시인 리색의 미학적 견해」, 『조선어문』 제1호, 1997.
- 김윤성, 「리익과 《성호악부》에 수록된 시작품의 주제사상적특성」, 『조선어문』 제3호, 1998.
- 김일성종합대학 한문학강좌 역, 『애국한시선』,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1960.
- 김진국, 「19세기 후반기에 창작된 반침략애국주제의 시작품들과 그 특성」, 『조

- 선어문』 제1호, 2001.
- 김춘택, 「고려시기 한자시에 대한 문학평론에서 논의된 서정시의 형태상 특성에 대한 문제」, 『조선어문』 제1호, 1995.
- 김충기, 「『사명집』의 시작품들에 구현된 반침략애국정신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제3호, 1993.
- 김하명, 「공산주의 교양과 고전문학유산」,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문화』, 과학원 출판사, 1959.
- 김희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반침략 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7권 제4호, 2001.
- 김희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문예산문으로서의 『기』(記)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4권 제4호, 1998.
- 리규찬, 「우리 나라 15-16세기 문예평론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전문학 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리성, 「리시항과 시 『평양의 노래』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3호, 1996.
- 리성, 「신광수와 『관서악부』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3호, 1997.
- 리창유, 「우리 시 문학건설에서 고전문학이 노는 중요역할」, 『조선고전문학문 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림명순, 「김상현과 『설교집』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4호, 1998.
- 림창덕, 「실학파문학의 언어형상」, 『조선어문』 제2호, 1999.
- 림창덕, 「고려말기에 창작된 반일애국시가의 언어형상」, 『조선어문』 제3호, 2000.
- 림창덕, 「『오음집』에 실려 있는 애국적한시들의 경향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1, 2001.
- 림창덕, 「실학파문학의 언어형상」, 『조선어문』 제2호, 1999.
- 목천복, 「『농암집』에 실려 있는 반침략애국주제의 한자서정시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4호, 2001.
- 박정양, 「홍량호의 악부시가 『청구단곡』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8권 제1호, 2002.
- 박춘명, 「19세기중엽 이후시기의 한시의 창작경향과 한시작가들의 창작활동」,

-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박치함 편, 『(박인로탄생400주년 기념)박인로 작품선』,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 출판사, 1961.
- 변규순, 「고려중엽의 시가문학유산에 대한 문헌학적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 연구소 고대중세사실, 「폐설문학의 역사와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2호, 1988.
- 송명심, 「고려전반기에 창작된 애국적주제의 서정시 작품들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제1호, 2003.
- 오희복, 「문헌자료를 통하여 본 리조시기 한자시 창작의 일반적경향」,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 어문학』 제49권 제4호, 2003.
- 원장철, 「평론집 <동인시화>에 표현된 서거정의 미학 견해」, 『조선어문』 제2호, 2003.
-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중, 하』,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 전종호, 「평양을 노래한 중세 단군관계 시가작품들의 주제사상적특성」, 『조선어문』 제3호, 2001.
- 정문향 편저, 『그네뛰기: 옛녀류시인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정홍교, 「서민시인 조수삼과 그의 작품들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1호, 1991.
- 정홍교, 「작품유산을 통하여 본 고려중엽의 진보적 시인 김극기의 창작 경향」, 『조선어문』 제2호, 1994.
- 정홍교, 「실학자들의 미학사상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제2호, 1996.
- 조선고전문학선집 4 『한시선집 1』,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 조선고전문학선집 5 『력대시선집(한시선집 2)』,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3.
- 조선고전문학선집 20 『력대한시집』, 민족출판사, 1989.
- 조선고전문학선집 20(로은욱 편저, 김찬순 역) 『기행문집(1)』, 문예출판사, 1988.
- 조선고전문학선집 28 『정약용작품선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 조선고전문학선집 50(김상훈, 류희정 역) 『리규보작품집 1, 2』, 문예출판사, 1990.

- 조선고전문학선집 54(신구현) 『리제현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 조선고전문학선집 57(류수, 김주철 역) 『김시습작품집』, 문예출판사, 1988.
- 조선고전문학선집 61(리철화) 『림제, 권필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 조선고전문학선집 70(리철화, 류수 역) 『정약용작품집(1)』, 문예출판사, 1990.
- 조선고전문학선집 72(오희복 역) 『김려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 조선고전문학선집 79(김세민 역) 『파수편』, 문예출판사, 1990.
- 지정엽, 「최연의 시창작활동에 대하여」,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황하건, 「〈익재집〉의 문학사적 고찰」, 『조선어문』 제3호, 1998.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 동국대학교 출판사, 2003.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 우상렬, 이광호, 「‘한국학’관계 북한의 석사, 박사 학위논문 목록」, 『정신문화』, 정신문화연구원, 2001년 겨울호.

<Abstract>

A Comparative Essay about Studies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 Focusing on Recent Studies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North Korea

Kang, Hye-Sun

This paper is aim to compare studies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E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recent studies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North Korea.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es is inferred as follows.

The trend of recent studies in the North Korea hav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literary criticism of Juche" which is based on "Juche idea"(it means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in the politics, economy, culture, ideology). The literary criticism of Juche is based on the principle which emphasize the creative combination of national literary forms and socialist ideology. Recent studies of the North Korea have searched for national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literature in accordance with the Juche criticism. These studies continually emphasize patriotic sentiments, people's virtue, national life style, beauty of homeland which were expressed in the literary works. By the way these studies ignore the truth that sino-korean literature had developed both of special characteristics(national characteristics) and universal characteristics(they had been receptive to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his thing is different from the trend of studies in the South Korea basically.

Values and meanings of sino-korean literature have been searched from various angles in the South Korea. The different standpoint of literary study can not be disregarded. Nevertheless, we can transcend differences in ideology or political system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and discuss on important notions of literary study together. For example, realism and romanticism, patriotism and nationalism,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class(intellectual class) consciousness, "Silhak" and modernity, etc.

Key Words : study of sino-korean literature,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different standpoint of literary study, "Juche idea", nationalism, realism